



글로벌 에너지 전시회 발전 계기 마련

이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열린 '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의 '에너지전시회'에서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글로벌 전시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에너지관리공단 이기섭 이사장을 통해 '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대해 들어 봤다.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있다. 향후 유가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는 OPEC의 고유가 정책과 나이지리아·이란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세계 석유재고 부족 등의 영향으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전개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9월 20일 기준) WTI 유가가 사상 최고가인 83.93불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유가 80불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무관하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76.09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나 나이지리아 및 이라크 내전, 대형 허리케인 같은 기상이변의 변수까지 감안하면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80불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고유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기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1975년 '연료사용 기기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에너지전시회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기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고 올해로 벌써 2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전시회는 에너지 관련 우수기자재의 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여러 업체들의 기술

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면서 국내 에너지기
기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절약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해
코트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호주, 중국 등에서
60여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브랜드
전시회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을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수가 전체 참여 업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CDM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업체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CDM마켓관이 기술공공관내에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와 약 90회의 전문 세미나를 개
최해 에너지관련 첨단 기술과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참여업체와 관람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
회로 거듭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전시회가 예년에 비해 특히 강조된 대목은 무엇 인가?

- 고유가의 장기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국·내외 고
효율제품의 기술교류와 판매촉진의 장을 형성하는데 주력
했다. 전시회 참가 업체의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코트
라와 협약을 맺어 수출 상담회를 열었고 실제 구매 고객으
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관람객을 선별 초청했다.

에너지 관련 최신 기술 정보를 폭 넓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이를 테면 대규모 국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고 전시회 출품업체중 우수 기
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발표 기회도 제공했다.

에너지자원 신기술 개발 경진대회와 신재생에너지대상을
통해 관련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행사도 의미까
웠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전시회통합운영시스템(ExpoOffice)
을 도입해 출품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업무과정을
간소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시장내에 현장지원
센터와 관람객 편의시설을 운영해 인터넷을 무료 제공하
고 카페테리아도 설치한 대목은 출품업체와 관람객의 만
족도를 높이는 수단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중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

- 고유가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가 전체
참여 업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해석된다. 특히 관련분야도 태양광과 태
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 연료전지, 수소이용기술 등으
로 다양화됐다. 예년에 비해 에너지효율과 환경친화성을
더욱 향상시킨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인 것도 주목할만 하
다. 예를 들면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자연채광기
구, 200W급 LED 가로등과 같은 똑똑한 절전 제품들이
그것인데 관람객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대형 건물이나 산업체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
는 기기들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나 부대 행사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 올해 전시회 기간중 에너지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공공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전문 세미나와 워크숍이 총 87회
열렸다. 그 대상도 정책 및 심포지엄, 태양광, 태양열, 연
료전지, 해양·소수력, 석탄·지열, 바이오·폐기물, 풍
력, 기후변화, 산업 부문으로 구성돼 신에너지 기술과 최
신 정보를 공유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을 모
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외에도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상 시상식과 국제 워크숍
과 같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행사가 진행됐다는 점
은 예년의 전시회에 비해 차별화된 대목으로 평가받고 있
다.